

사설

스리랑카 범우들에게 자비를

장마가 시작됐다. 해마다 찾아오는 장마지만 늘 불안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된다. 장맛비는 단순한 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인명과 재산피해를 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안철 불감증'이라는 말로 대변되어 온 우리의 안전 의식은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국민을 불안하게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올 장마가 시작되기 전 우리 불자들은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고 있다. 불교의 전통과 문화 유산을 잘 간직하고 있는 스리랑카에 엄청난 수재민이 발생 국가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스리랑카 사회복지국은 지난달 엄청난 폭우로 15만 가구 60만 여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라프나프라주의 바루고다 지역에서는 122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전국

에서 235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실종 됐다고 한다.

이런 때에 조계종 총무원이 "스리랑카 수재민에게 자비의 손길을"이란 슬로건을 걸고 대대적인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불교계 주요 언론사들도 조계종 총무원의 뜻에 적극 동참해 홍보 등 여러 방면에서 돕기로 했다. 백번 환영하고 천 번 박수 칠 일이다. 이웃의 고통을 나눌 줄 모른다면 그것은 불자의도리가 아니다. 그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실천이 진정한 자비다.

한국의 불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수재를 당해 본 경험이 많기에 스리랑카 수재민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스리랑카의 고통 받는 범우(法友)들을 위한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여름불교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래의 부처'를 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이법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줄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 대해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는 높다. 그런데 현실은 왜 뒷걸음질인가. 현실 인식과 대안 모색이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기 때문이다.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때다.

'어린이 포교'는 어린이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일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포교보다는 '어린이'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말이다. 요즘 아이들은 온갖 화려한 볼거리와 놀거리에 중독돼 있다. 또한 그것들은 지극히 개인적이다. 거기에 더하여 과외와 학원에 시달리느라 어른들만큼이나 바쁘다. 이런 요즘 아이들을 잘 마당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쉽지 않은 건 너무도 당연하다.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이다.

요즘 아이들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개인 신앙에 머물고 마는 부모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입시철만 되면 밤새워 부쳐남게 합격을 기원하면서 어린 자녀를 부쳐남 품에 안기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네 기도'까지 내가 할 터이니 너는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식으로는 곤란하다. 자신들이 자갓지갓게 하는 전쟁터와 같은 경쟁 사회를 고스란히 물려주면서 '불국정토'를 꿈꾸는 것은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여름 '불교여름학교'는 신도들의 적극적 참여로 많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부처님의 품에서 뛰노는 마당이 되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세인: 유승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www.buddhapia.com
 불교소평: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기초선원 8안거·6교과안거 마친 외국인 사미(니)에 구족계 자격

조계종 교육원, 기초선원을 기본선원으로 개칭

앞으로 외국인 스님들은 외국인 기초선원에서 정규 8안거를 성만하고, 산철 기간 동안 6번의 교과 안거를 마쳐면 구족계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내 스님들과 똑같이 '4년 교육기간, 기초선원 8안거'라는 규정만 있었을 뿐 외국인 스님이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었다.

이 조계종이 외국인에 대한 행자교육을 직접 행한 1995년 이후 30여 명이 사미니 계를 받았지만 구족계를 수계한 외국인 스님은 단 1명뿐이라는 문제의식에

서 출발했다. 그동안 외국인 수행자는 4년, 8안거라는 구족계 수지 자격을 마치더라도 한국어 구사 능력 부족 등으로 교과 안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보니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4급 승가고시 응시 자격조차 얻기가 힘들었다.

외국인 수행자를 위한 교육 및 수계 체계 확립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조계종은 2001년 화계사와 연등국제불교회관, 2002년 무상사를 외국인 기초선원으로 지정했고, 지난 해 처음 외국인 스님들을

위한 교과 안거를 실시한 바 있다. 교육원은 그러나 지난 해 이전에는 교과 안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 2002년 행자교육원을 마친 사미(니)는 4안거, 2001년 2안거, 2000년 이전 기수는 1안거 이상만 마쳐면 구족계 수지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경과 조치를 뒀다.

올해 교과안거 이수 교육은 사찰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습의와 불교문화의 이해, 한국 선의 이해, 경전 및 선어록 강의, 한국선사의

생애와 사상 등을 내용으로 9월 19일~10월 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교육원 회의에서는 기초교육(행자) 기본교육(사미, 사미니) 전문교육(비구, 비구니)으로 돼 있는 종단 교육수행체계에 비춰볼 때 기초선원이 기본교육기관임에도 용어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따라 명칭을 '기본선원'으로 바꾸는 안을 총무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주지후보 화법·철안스님

봉선사, 1일 산중총회

봉선사는 1일 오후 1시 산중총회를 열고 새 주지를 선출한다. 새 주지 후보로는 화법스님(서울 흥국사 주지)과 철안스님(남양주 봉영사 주지)이 올라왔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27일 104차 회의를 열어 두 스님에 대한 자격심사를 벌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한명우 기자

스리랑카 최악 홍수...60만명 수해

조계종 불교언론사들 이재민돕기 운동

스리랑카가 56년만의 최악의 홍수로 현재까지 적어도 70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6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전국 25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바루고다 지역은 122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는 등 지역 전체가 아수

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235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실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국 25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바루고다 지역은 122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는 등 지역 전체가 아수

뭍기에 나섰다. 조계종은 최근 전국 본말사에 공문을 보내 스리랑카 이재민돕기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등 이달 31일까지 모금 창구를 개설하고 불자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한다.

본지를 포함한 법보신문, 불교신문,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등 교계 언론들도 불자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모금 참여를 위해 조계종 모금활동을 공동 후원한다.

한명우 기자

본사 임직원 급여 1% 이재민돕기 성금 기탁

본지는 조계종과 불교계 언론이 전개하고 있는 스리랑카 이재민 돕기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전 직원의 한 달 급여 1%를 모금, 6월 27일 총무원에 전달했다.

"법장스님 신당막후 지원" 왜곡 보도

조계종, 동아일보에 사과 촉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한나라당 개화파 의원들의 신당 지원 입장을 밝혔다는 6월24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대해 조계종이 다음날인 25일 정정보도와 사과문을 게재를 요구했다.

조계종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신당(한나라당) 지원 동아일보 왜곡 보도에 대한 조계종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수석사를 방문한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의 요청으로 잠시 만나 대화를 한 것뿐인데, 마치 신당 창

당 및 도립공원의 지정 승인만을 지방에 이양하고, 개발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폐지 및 구역변경은 중앙정부(군립공원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동우 기자

고침 본지 427호 1면 '시험 치르는 영산재' 사진 기사 중 봉은사는 봉원사의 오기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또 4면 '전쟁, 기아...'기사 말미 스리랑카 대사의 이름 지베아시리는 비제아시리로, 18면의 '지금 수련회...'기사의 미향사는 미향사로 각각 바로 잡습니다.

군립·도립공원 지정승인 각지방 자치단체에 이양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위원회는 6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군

'현대' 민평 심민섭

일부 불교 창가학회
 우리도 민평연습 해요
 한국불교

시장 제일기도도량 도솔천 내원궁 도솔암

1029일 천도재

도솔암은 최근 극락보전을 중창 낙성하고 아미타부처님을 개금해드리는 한편 후불행화를 새로 모셨습니다. 이 뜻깊은 불사 회향을 선망부모·유주·무주 고향과 함께 하고자 1029일 동안 49재를 21번 지내는 대규모 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동참 불자께서는 천도제사를 매주 올리게 되며 기도회향까지 총 147회의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49재 안내

제 1재	6월 29일	제 2재	7월 6일	제 3재	7월 13일
제 4재	7월 20일	제 5재	7월 27일	제 6재	8월 3일

첫 번째 49재 - 8월10일 용주사 주지 정락근스님 영가법문

- ▶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 철야 지장기도
-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천도제사 (영가천도 법회 총 147회)

■ 교통안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조계사 앞 출발 / ● 매주 일요일 오전 6시30분 조계사 앞 출발

도솔암 전화 063)561-0075 / 팩스 063)561-4080

서울 017-221-8778(이회장) 02)821-3242,4689(진여회)

부산 011-855-8741(부산고승관광 박길하), 016-842-4272(유정희) 대전 011-409-2702(동선관광 이현호)

조계종제24구본사
선운사

도솔암 주지 지정 합장



◆도솔암 지장보살(보물 제280호)